

설악산 백담사

인제군 북면에 소재하는 백담 계곡은 백담사에서 용대리에 이르는 구간을 말한다. 8Km 구간에 차도가 있으나 차량 통행은 막고 있다. 설악 동쪽보다 조용하고 계곡의 아름다움이 감탄사를 자아낸다. 또 이 계곡은 설악의 계곡을 거의 모두 합친 어머니 격으로, 백담이라는 이름 그대로 넓고 깊은 소가 많다.

설악산의 최고봉인 대청봉과 마등령을 잇는 능선을 중심으로 서부 지역을 흔히 내설악이라 한다. 내설악은 12 선녀탕, 백담, 수렴동, 가야동, 백운동 등의 계곡을 거느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백담 계곡은 시냇물처럼 폭이 넓고 길이도 길다.

깨끗한 암반과 조약돌, 맑은 물, 주위의 울창한 숲과 부드러운 산세가 어우러져 시원스러운 백담(百潭) 계곡은 100 개의 담(물이 고인 깊은 곳)이 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백담산장 위부터 수렴동 대피소까지의 계곡은 수렴동 계곡이라 부르지만 사실 백담 계곡과 수렴동 계곡은 하나의 계곡이다.

백담 계곡 중심부에 자리한 백담사는 만해 한용운의 자취가 어려 있는 고찰이다.